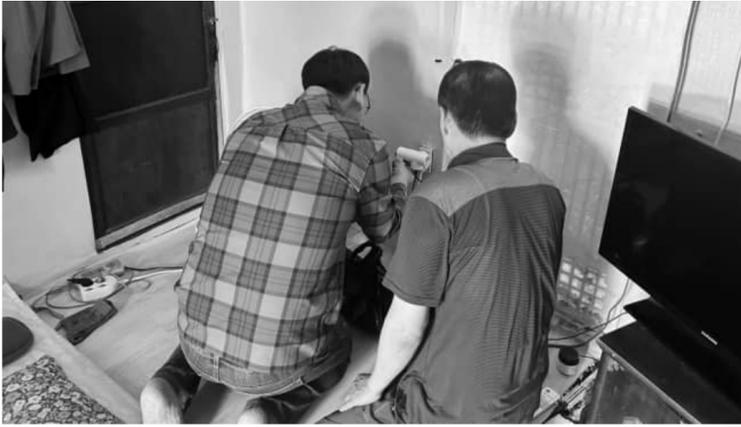


# 곡성군 전력사용량 체크 고독사 막는다

전남 첫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  
50시간 변화 없으면 위험 경고  
1인 가구 107곳에 플러그 설치



지난 19일 곡성지역 중장년 1인 가구 집에 전력 사용량 변화로 위험을 감지하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를 설치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이 중장년 1인 가구에 전기 사용량을 관측하며 위험 환경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을 전남에서 처음 추진한다.

군은 전체 세대의 55%(1만5591가구 중 8673가구)를 차지하는 1인 가구가 처하는 생활 위협을 예방하고, 나아가서는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곡성군은 군비 2400만원을 투입해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다.

'스마트 돌봄 플러그'는 가정에서 쓰는 전력량과 온도(조명)의 변화가 50시간 동안 없으면 위험을 알리는 사물인터넷 기술이다.

가정에서 자주 쓰는 TV나 전기 주전자 등 가전제품의 플러그와 콘센트 사이에 끼는 멀티탭 형태 기기를 활용한다. 스마트 플러그는 1시간 단위로 전력량 정보를 수집한다. 사업을 담당하는 읍면직원은 경고 문자를 받고 10분 간격으로 3차례 안부 전화를 걸어 잠재적 위험 상황에 대비한다.

곡성군은 마을 이장과 읍·면사무소 등의 추천을 받은 중장년 1인 가구로부터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 신청을 받았다.

올해는 만 40~64세 107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돌봄 플러그를 설치했다.

곡성군은 지난달 읍·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달 19일 해당 가구에 플러그를 설치했다.

군은 읍·면사무소에서 스마트 돌봄 플러그 신청을 상시로 받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처음 시행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남에서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는 503명에 달했다.

지난 2021년 전남에서 홀로 죽음을 맞은 124명 가운데 72.6%(90명)은 40~60대로 나타났다. 전남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6.8명으로, 전국 평균(6.6명)을 웃돌았다.

최근 5년간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38.4%), 대전(23.0%), 강원

(13.2%)에 이어 전남이 12.7%로 전국 네 번째를 차지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곡성군의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포함해 18개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하은 곡성군 인구정책과 주무관은 "막상 집에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하려니 생소해 하는 1인 가구도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 관심을 두고 사업에 임하기로 했다"며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은 전국적으로 중요한 현안이기에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 한수원, 보성 검백 8개 마을 개선사업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주) 보성강수력발전소가 보성군 검백면 8개 마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보성군 검백면과 보성강수력발전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백면 마을 공동 이용시설 보수 및 비품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협약식에는 임운모 검백면장과 김재순 한수원 보성강수력발전소장이 참석했다.

보성강수력발전소는 올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을 지원한다.

검백면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8개 마을의 회관과 우산각 등을 보수하고 마을 공동비품을 구입할 방침이다.

한수원 보성강수력발전소는 보성강댐 하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임운모 면장은 "태풍·장마 등 수해와 영농기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백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임선봉·가운데)가 지난 22일 열린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외국인 말하기 대회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세계인의 날' 행사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세계인의 날' (5월 20일)을 기념해 지난 22일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오후 여수시 화장동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여수·순천·광양 등지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유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각국 전통 문화공연과 사물놀이 등이 무대에 올랐고, 외국인 말하기 경연과 시상식이 진행됐다.

"한국에서 이루고픈 꿈, 한국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을 주제로 열린 외국인 말하기 대회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전남대학교 유학생 이스칸드르씨가 최우수상을 받는 등 총 9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스칸드르씨는 "내 꿈을 위해 오늘도 달

린다'를 주제로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 9명에게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장학금 전달은 여수출입국사회통합협의회(회장 배동문·부회장 박원균)가 후원했다. 외국인 말하기 대회 최우수상을 차지한 이스칸드르씨는 "한국에 온 후 가장 즐겁고 유익한 날을 보냈다"고 감사를 전했다.

임선봉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화합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정책을 실천하겠다"며 "외국인이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광양매실 첫 출하...생산량 지난해보다 30% 감소 예상

광양시, 전정·흙쇼핑 판매 등 지원

광양시의 특산물 '광양매실'이 23일 출하를 시작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23일 오전 광양원예농협 다압매실선별장에서 광양매실 출하와 시장 판매를 개시하는 출하식을 가졌다. <사진>

출하식은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농협중앙회전남지역 부분부장, 농협광양시지부장, 지역 내 지역농협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매실 선별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출하 농가를 만나 우수 매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농가소득 증대 방안 등 의견을 나눴다.

올해 광양매실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5000여t이 생산될 전망이다.

불철 개화기 이상기온과 꽃벌 활동 감소로 수정 불량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매실은 다른 지역 매실에 비해 구연산 함량이 높고 향이 진하고 색깔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제36호), 매실 산업 특구로 지정받아 2015년부터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별



은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에 8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매실로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시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광양매실의 경쟁력을 더 높이고 명품 매실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실 과원 정지전정 인력 지원, 매실동력전정기 지원, 직거래 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광양매실 소비 확대를 위해 흙쇼핑 판매 지

원, 장아찌 가공용 매실씨 분리기 보급, 소비자 홍보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매실의 상품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다양한 홍보 및 판촉 활동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해 명품 광양매실의 명성을 유지하고, 매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고흥군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공모 선정

30억 투입 청하량 상추 재배단지

고흥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3년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 작물 육성 및 생산기반을 조성해 고소득 시설원예 품목을 단지화하고, 기능성 채소를 확대 육성하기 위해 전남도가 매년 1~2개소를 선정하고 있다.

고흥군은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필요성을 인지

하고 락투스이라는 항스트레스 성분 함량이 일반 상추 대비 2배 높아 신경 진정 효과와 숙면을 유도하는 건강 기능성 품목으로 인정받고 있는 청하량 상추품목을 발굴했다.

공모 선정을 위해 대상지 적정성 검토, 전문 용역기관 자문 등 꼼꼼한 준비를 해왔다. 군은 올해부터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시설하우스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해 3ha 규모의 기능성 채소인 청하량 상추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 목 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 목 장 의 장 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